

amagram

Success Partner for a Better Life

Year in Review 2007 회계연도

How to Look Younger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장(藏)부터 바꿔라

원 터치의 마법, 동안 메이크업

동안의 포인트는 깨끗한 치아

2007 리더십 세미나 산야

Special Theme

동안 생활백서, 노하우를 찾아라



8 AUGUST / 2007

Contents



2007 AMAGRAM_No.187
AUGUST



COVER STORY

여름의 중심에 선 8월. 도심 속 열기에 시달리다 보면 아국적인 향기 물씬 풍기는 휴양지가 저절로 떠오르시죠? 당장 떠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아자나무 그늘아래 앉아 있을 날이 올테니까요. 아마크림 8월호가 여러분의 여름을 응원합니다.

message	Focused on the 50th	05
health	상큼한 충전이 필요할 때 췌장!	07
special theme	동안 생활백서, 노하우를 찾아라!	08

products guide

how to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장(臟)부터 바꿔라!	14
look younger	원 터치의 마법, 동안 메이크업	16
	동안의 포인트는 깨끗한 치아!	18
event	3D 리프팅 씨름과 뷰티샷의 특별한 만남! 美녀들의 만찬	20
	트리타지 1주년 기념 캠페인	22
	닳은 얼굴, 같은 마음 동안동심(同顔同心) 컨테스트	23
nutrilite report	<제8편 뉴트리라이트 연구원 인터뷰> NHI 수석 피트니스 컨설턴트 손 포이	24
new arrival	뉴트리라이트 에프오에스 블렌드 프락토올리고당	26
event	암웨이 브랜드 센터 - 토탈 뷰티 체험	28
event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 2007 리더십 세미나 산아	29
special focus	Year in Review 2007 회계연도	30

business guide

business advice	파트너십 칼럼⑨ 함께 성공하는 한국암웨이 파트너십	34
education advice	현명한 부모되기 가이드② 다음 학기를 바꾸는 방학계획 세우기	38



Steve Van Andel_Chairman
Doug DeVos_President

Focused on the 50th

영광스러운 과거와 희망찬 미래, 이 모두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09년, 암웨이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 이야기 같지요? 2년 뒤에 있을 창립 50주년 행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글을 전합니다.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암웨이사업을 가능케 한 지난 50년간의 세월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물론 다가올 미래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제품들과 멋진 사람들로 가득한 밝은 미래! 우리가 이처럼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억에 남을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며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Our company turns 50 in 2009. So why talk about it now? Well, the celebr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we want you there.

We're going to honor our past...a past that has led us to more than 80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made our business opportunity available to a sales force of more than 3 million people just like you. We're going to celebrate our future...a bright future full of great products and amazing people. A future that is bright because it includes each and every one of you.

So let's kick off this new qualification year in style as we prepare for a celebration to remember.

스티브 밴 앤델 / 암웨이 회장

덕 디보스 / 암웨이·팍스타 총괄 사장



2007 AMAGRAM_No.187
AUGUST

Contents

economic focus	스트레스 없는 재테크 법칙③ 신용 우등생을 만드는 계획적인 경제 생활	38
colorful interview	Same Vision, Different Style-IBO 인터뷰	40
living	암웨이 정수기 WTS/eSpring Slim Down Promotion	41
notice	비타민/무기질 상한섭취량에 관한 안내문 & ABN 안내	42
rules of conduct	바른 사업 실천 캠페인 - 긍정적인 사업 이미지 형성	49

news gathering

product news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 소개	44
amway news	암웨이의 생생한 최신 소식들	47
ibo plaza news	전국 각 IBO 프라자에서 진행된 이벤트와 다양한 소식들	48

new achievements

interview	수석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6월 1일부)	50
recognition	에메랄드/사파이어/루비/플래티늄/골드 프로듀서/실버 프로듀서 (6월 1일부)	53
schedule	8월 교육일정, ABC 일정표	59

IBO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마그램

아마그램에 대한 IBO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마그램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아마그램을 본 후 느낀 소감 등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접속 경로 : ABN→사이버북→아마그램 페이지의 '나의 의견 작성하기' 버튼 클릭

EDITORIAL 발행·편집인 CEO & Publisher 박세준 _ 편집책임 Managing Director 이미혜 _ 편집 Editor-in-Chief 박해영 _ Senior Editor 박해원 _ 취재 News gathering (주)위컴에드 ART & GRAPHIC 디자인 Design (주)위컴에드 _ 사진 Photograph Bis Studio _ 일러스트 Illust 임영택, 이해경 STYLE 스타일 Styling 이충신 PRINT & OUTPUT 사진제판 Scan & Photo Engraving 명성에드 _ 인쇄 Print 대원문화사, 대영인쇄사 _ 등록번호 서울 라-05179 _ 공급처 한국암웨이주식회사·서울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성유센터빌딩 (대표전화 : 1588-0080) _ 발행처 (주)위컴에드 _ 발행일 매월 25일 발행

※ 본 잡지에 실린 기사 및 일러스트, 사진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아마그램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BO 전용사이트 _ www.abnkorea.co.kr 퍼블릭사이트 _ www.amwaykorea.co.kr

대한민국직접판매협회
KOSA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
한국암웨이는 한국직접판매협회의 회원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김종화 | 수석 다이아몬드 (2007년 6월 1일부)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을 때는 제가 잘해서 나온 결과인줄 알았는데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인지 핀 성취 소식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는 첫 마디 만으로도 '버는 일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모두가 부러워할 성공의 순간에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니,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르고 난 후 자연의 위대함에 숙연해졌다는 산악인들의 심정과 같은 것일까. 사실 그는 제작년부터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했던 티라 막상 핀을 성취한 순간에는 너무 덤덤했다고 한다. "핀 성취만을 목표로 사업을 했던 건 아닌데, 될 듯 될 듯 안되니까 힘이 들더군요. 주저앉아버릴 수는 없어서 스폰서분께 충고도 듣고 제 부족한 점에 대해 고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끝내 겸손함을 잃지 않는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마지막 봉우리를 남기고 힘겨워 주저 앉아 버리는 대신 가장 힘든 순간에 심기일전해서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정상을 정복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를 이겨냈다는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의 사람 좋은 웃음 뒤로 바로 굳은 의지와 냉철한 자기 반성이 묻어 났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끼어들게 되면 행동할 수 없으니까요.” 일본 스폰서분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는 사업 초기, 가족들이 반대를 할 때도 설득이 우선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선택한 암웨이사업이니 우선은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 그 결과 지금은 가족 모두가 그의 사업을 인정하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물론 그에게도 힘든 순간은 있었다. 함께 하던 파트너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떠나는 때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고. “젖은 경우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답답했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사업은 ‘사업’ 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만큼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한거죠.” 그때부터 힘든 일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파트너들에게는 솔직하겠다는 그의 말에 더욱 신뢰가 갔다. “암웨이사업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사업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과 행복한 순간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시작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그만 좌절에도 포기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힘들었던 일까지 포함한 제 경험을 파트너분들과 진솔하게 나누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엄격하고 솔직한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의 말을 건넸다. “사업 초기에 자신감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다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 두려운 순간에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만들고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웨이사업의 비전은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수석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한 것만으로도 성공자의 반열에 들기에 충분하지만 열정으로 가득한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에 겸손함까지 갖춘 믿음직한 리더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 힘든 시절 어머니께서 보여 주신 ‘결단’의 가치를 언제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에 어떤 도전 앞에서도 움츠러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모습에서 진정한 암웨이 사업가,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김종화 수석 다이아몬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㉓

사업 초기에 자신감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죠. 대신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만들고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Profile

Sign-up 1995. 08 / Platinum 1996. 06 /
Sapphire 1997. 04 / Emerald 1997.09 /
Diamond 2002.04 /
Executive Diamond 2007. 06



박희숙 | 다이아몬드 (2007년 6월 1일부)



순간의 반전이 아닌 꾸준한 성장을 꿈꾸십시오

8년 만에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한 박희숙 다이아몬드는 의외로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었다. “암웨이사업의 목표는 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핀 성취는 성장하며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요?” 다만 그 과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에 박희숙 다이아몬드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늘 노력한다고. “사실 무슨 일을 하든 가장 힘든 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은 명쾌해져요. 종가집 맘머느리인 저는 집안일 만으로도 바빴지만 암웨이사업을 만나고 난 후 오히려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둘 다 제가 해야 할 일이나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묵묵히 실천하는 거죠.” 베테랑 주부이자 사업가다운 그의 면모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암웨이사업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기에 한 순간의 반전을 바라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감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렇듯 사업에 폭 빠져 있는 박희숙 다이아몬드도 암웨이사업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선입견을 가졌다고. 하지만 가사에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이 새벽 6시에 암웨이 제품을 이용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본 순간, 그를 변하게 하는 제품과 사업이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박희숙 다이아몬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업을 했고 지금은 시작에서도 ‘사업가’로서 인정받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남편은 이 사업을 제게 알려 줬고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으니 암웨이사업은 저희 부부가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 같아요.” 특히 암웨이사업은 나이에 상관 없는 사업이니 죽는 날까지 꾸준히 하고 싶다는 박희숙 다이아몬드.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사업을 이끌어 와서일까,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의 충고는 평범한 듯 진지하다. “암웨이사업은 성공의 방법을 따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 문제죠. 제대로 된 방법을 따르며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르다 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New Achievements

EMERALD



2007년 6월 1일부



김은옥 & 이창국 울산 중구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먼저 사업을 알려 주신 업라인 사장님과 부족한 저희 부부를 믿고 함께 해온 파트너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품이 좋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큰 꿈과 희망을 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최고의 제품과 멋진 사업기회를 전달하다 보니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사업은 책임과 끈기의 사업입니다. 파트너에게는 책임감으로 나 자신에게는 끈기로 스폰서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석경희 경남 김해시 / 한국암웨이 IBO

평범하던 제가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고 보니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뜻한 격려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워 주신 스폰서님과 업라인 사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성공을 향해 달리고 계신 여러 파트너분들. 그 모든 분들의 팀웍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웨이사업은 '꿈'이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강하면 좌절이나 슬럼프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능력보다 꿈을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엄마에게 용기를 주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송미연 & 박영식 전북 전주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스폰서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싫증나면 벗어 버릴 수 있는 의복과 같은 사랑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잘라버릴 수 없는 수족과 같은 사랑. 암웨이사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사랑이 바로 수족과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저는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며 힘들어 하던 순간, 평생 함께 하는 동행이 있음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잃었던 미소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 주시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꾸준한 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은희
서울 송파구
일아강사



구은미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BO



김은미 & 최종식
대전 중구
치과 의사



김인아
서울 용산구
한국암웨이 BO



문미연
서울 서초구
한국암웨이 BO



박순희 & 이윤식
부산 북산진구
한국암웨이 BO & 건설업



사일화 & 김영준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BO & 연구원



송민숙
서울 노원구
한국암웨이 BO



심진주 & 이성형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장미정 & 조승연
인천 연수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차정선 & 장호성
강원 원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채지연 & 이호몽
부산 사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윤희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김은희 & 구본식
인천 연수구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김보영
대구 북구
회사원



김임선 & 옥정웅
부산 북구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김지훈 & 이성경
경남 마산시
자영업 & 자영업사



김채령 & 강화석
부산 해운대구
한국알웨이 IBO & 자영업



민지현 & 이승도
서울 강동구
한국알웨이 IBO & IT 사업



박선희
대전 유성구
프리랜서



박수미 & 이창원
경기 용인시
한국알웨이 IBO & 자영업



박승화 & 박병현
서울 송파구
대체의학상담사 & 회사원



원미선 & 김현수
대구 달성군
한국알웨이 IBO & 자영업



이동훈 & 박주희
대구 동구
회사원



이미임 & 김동수
경기 진주시
전문직 & 자영업



이상혜
서울 중구
디자이너



이인숙
경기 광명시
자영업



임복순 & 장나성
부산 북구
한국알웨이 IBO & 건축업



장경복
부산 금정구
전문직



최상주
서울 서초구
한국알웨이 IBO



최소은 & 윤재식
부산 동구
한국알웨이 IBO & 자영업



최은정 & 윤효중
경기 군포시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최현주 & 황문선
대전 서구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RECOGNITION

RUBY



2007년 6월 1일부



한영미
경기 남양주시
한국암웨이 BO



황현주
서울 성북구
한국암웨이 BO



김은숙 & 류재호
서울 광진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2007년 4월 1일부

RUBY

권 숙 & 김원태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 회원
이안순 경기 용인시 / 한국암웨이 BO
한수현 대전 중구 / 한국암웨이 BO

PLATINUM



2007년 6월 1일부



강동욱
부산 해운대구
건축시경기술사



강지남 & 김태구
부산 서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차영업



강호진 & 강규진
서울 광진구
외국계회사



김광수 & 오경신
대구 달서구
회사원 & 자영업



김기희 & 박성익
인천 남동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두리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김명남
경남 김해시
과외



김묘근
대구 수성구
한국암웨이 BO



김병숙
경기 광주시
한국암웨이 BO



김희숙
인천 남구
자영업



박영미
부산 부산진구
웨딩 프리랜서



박영순 & 이창동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정연 & 안재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혜옥 & 김진태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배문주 & 김학밀
충남 천안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배서진
부산 동래구
학원원장



배순천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배현호 & 박미경
부산 부산진구
회사원 & 음악학원운영



서석진 & 정수진
서울 동작구
강사 & 한국암웨이 BO



신혜경 & 현지훈
경기 수원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임미순
경기 의왕시
피아노교사



임주연 & 최주익
서울 성동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양연승 & 강영옥
경기 부천시
자영업 & 보험



유혜숙 & 백상기
충북 충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윤선자
광주 남구
한국암웨이 BO



이미애 & 현철호
경기 수원시
꽃꽂이강사 & 건축사



이상연 & 조은조
서울 성북구
회사원 & 외국어강사



이순영 & 양재진
충북 청주시
영양사 & 회사원



이윤재 & 김준희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컴퓨터프로그래머



이윤지 & 김호성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진영
인천 부평구
자영업



이혜성
경기 용인시
전문직



임정숙
서울 용산구
한국암웨이 BO



장미화
경기 군포시
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정은아 & 조명제
서울 강동구
프리랜서 & 자영업



조대식 & 전태영
경기 광명시
예술인 & 학원운영



주정희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진현욱 & 유승우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인터넷통신기술부



채유정 & 김순태
경기 성남시
의문전문직 & 회사원



최주화 & 박진수
강원 원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진나
경북 경산시
한국암웨이 BO



탁가현
부산 동래구
한국암웨이 BO



하정동 & 조명희
경기 남양주시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한귀현 & 신지나
경기 부천시
한국암웨이 BO



홍영희
서울 강남구
한국암웨이 BO

RECOGNITION

PLATINUM



2007년 6월 1일부



황계남
부산 해운대구
회사원



황유경
경기 부천시
한국암웨이 IBO



황형원
부산 서하구
제과점근무



류장자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IBO

2007년 5월 1일부

PLATINUM

김소영 경기 성남시 / 문화센터강사
박은실 전북 군산시 / 서비스업
서미경 인천 남구 / 한국암웨이 IBO
안송이 서울 마포구 / 회사원

이관훈 & 안정자 부산 남구 /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이정순 경남 마산시 / 한국암웨이 IBO
이정환 서울 성동구 / 음식점경영

GOLD PRODUCER



2007년 6월 1일부

강옥희	김영자	박성심 & 이주복	양용철	이만수	이현숙 & 문병근	조규선	최혜숙 & 김형태	홍진혜 & 장재원
김지윤	김은정 & 최인근	박용선	양정학	이병국	이혜연	조성익	표은영	
구지영 & 김순겸	김종란 & 류재희	박정선	오경희	이상식	이효숙 & 양송배	조영선 & 김두현	하수진	2007년 5월 1일부
권남숙	김지희	백은숙 & 이희일	오미경 & 유석봉	이승수 & 김현주	이희준	조창금	하지윤 & 이영안	박은정
김경숙 & 노원종	김필수	손경진	오순임 & 천용덕	이신화	임규영	조혜원	한동식	최정심
김경희	김혜랑	송유진 & 강대용	오은실 & 이호영	이옥자 & 김병식	장연미 & 이성욱	채상현	한상면 & 하미향	
김기수	김희경	신성기 & 김현미	유규호	이윤경	장영택	천미애 & 이철근	허경수	
김남희	남진란	신순희 & 김동일	유소영	이은정 & 윤문정	장인혜	천정록 & 전재순	허복동	
김명임 & 양의섭	도현주 & 김원중	신재은	유대순	이인옥	장준기	최경아	허윤정	
김미선 & 이형철	도희자 & 김종진	신종욱	이강우 & 방정숙	이주희	전옥단	최덕영	현정미	
김민주 & 이재경	민유정	신현연	이기수 & 문영순	이창진 & 서심도	정명숙	최보순	홍미숙 & 박우성	
김순천 & 김영현	박미선	신종범 & 이지숙	이덕규	이춘삼	정성채 & 김재현	최재영	홍성예	
김영신 & 고명준	박상곤 & 이미자	안혜선	이덕희	이해진	정대진 & 김정태	최현주 & 김보인	홍인순	

SILVER PRODUCER



2007년 6월 1일부

김경숙	김명순	김현수	서강순 & 강석광	윤미숙	이재환	정덕훈	최정애 & 최승훈	2006년 10월 1일부
김영미	김명자	김현숙	송차순	윤보은	이점분	정은주	추옥희	김종한
김정아	김분자	김화정 & 김말한	신경선	윤복진	이만두	정은희	하은희	
고동희	김병진	김효경 & 임재홍	신성진	이경화	임상자	정정숙	한해경	2007년 1월 1일부
고은아	김수민	노태성	신재용	이경희 & 강태종	임은경	조경미	홍일식	권경애
곽영미	김순희	박덕은	심정순	이명숙	임혜림	조연옥 & 추연태	황미향	
구선미	김원자	박세정	안길아 & 이재현	이미진	장내정	조재상	황창선 & 정미경	2007년 4월 1일부
금미랑	김윤경	박순자 & 옥주석	여창재	이상돈	장선옥	채순애 & 최공락		김미랑
김경희	김윤아	박영주	오점민 & 오성춘	이오복	장순임	최경심 & 김양규		
김금채 & 소선숙	김은숙 & 허금구	박정근 & 김은영	우태욱 & 허은정	이옥수 & 이원도	장해진	최동영 & 안현진		
김덕순 & 임경식	김종숙 & 박석명	박준화	유재진	이은정 & 조인천	전경훈 & 이원경	최영선		
김동철	김진옥	배미리	윤나영 & 오형인	이은혜	전순선	최용희		

※ 레코그니션에 실릴 사진은 우편(서울시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8층 한국암웨이 아마크렘 담당자 앞)과 이메일(amagram@amwaykorea.co.kr)을 통해 접수합니다.